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다!



□ 개요

- 프로그램명 : 찾아가는 교육 기부 『신(新)바람에너지 교육』
- 수혜기관 : 전국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농어촌지역 중학교 등 141개교(기관)
- 일 시 : 2019년 7월 ~ 12월
- 내 용 : 사회적 약자,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고도화를 통한 전국 단위의 교육 서비스 제공
<신(新)바람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수혜대상	교육명	주요 교육 내용
돌봄교실 (초등 저학년)	신(新)바람에너지 교실	동화 기반 스토리텔링형 신·재생에너지 인지도교육 및 신재생에너지 제품 만들기 체험 활동(5차시)
지역아동센터 (초등 고학년)	신(新)바람에너지 놀이터	생활 연계 신·재생에너지 이해 및 에너지 페스티벌 (마술공연, 골든벨, 에너지 토크콘서트, 체험부스 등)
중학생 (농어촌 등)	신(新)바람에너지 스쿨	에너지 역사 및 신·재생에너지 개념 이해, 에너지 진로 정보 제공 및 시설현장 체험(5차시)

- 참석자 : 공단, 한전 및 발전 6사, 교육 전문기관 등 총 91명
- 작성자 : 국민참여실 정나래 대리

□ 내용

“미래세대 신재생에너지 교육“ 올해 초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의 학창시절 꿈은 “교사“ 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내가 교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고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하고,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던 저에게 “교육 담당“ 이라는 업무는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 온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분야의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신(新)바람에너지 스쿨"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 교육 현장 반응도 무척 뜨거웠으나, 아쉬운점은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상을 어떻게 확대해볼까 고민했습니다. "교육 기회 부족", "교육 소외" 등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의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 "초등 돌봄서비스 2만명 확충 ... 그러나 학교당 전일제교사 1명 뿐 "대책 시급"
(내일신문, '19.01.08)
→ 정부 국정과제로 초등 돌봄교실 1,400실 확대 운영 확정('19년)되었으나, 운영 프로그램 및 돌봄교사는 부족한 실정, 아이들이 방치될 우려
- "사회적 돌봄 최후의 보루, 지역아동센터가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19.02.17)
→ '19년 최저임금 10.9% 인상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 국가 지원금 2.5% 인상, 예산부족으로 아동 교육 프로그램 축소 및 품질 저하 우려

정부에서 저출산극복 대책 중 하나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한다고 했으나, 돌봄교실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었고, 지역아동센터는 교사 임금비중이 높아져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품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가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시설입니다.)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교육 예산 1억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 및 발전6사(이하 '에너지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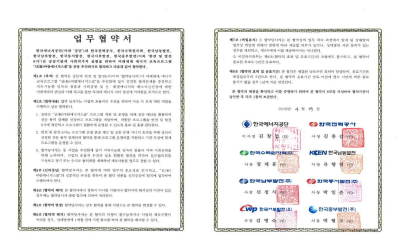




각 기관별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에너지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의 실무협의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라는 의미있는 목표를 기반으로 교육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정식 MOU 체결에 성공하고, 각 기관별 1억원, 총 7억원 이라는 든든한 교육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단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총괄, 에너지공기업 7개사는 예산 협조와 체험 교육 장소 제공, 홍보 등 역할 분담을 통해 대망의 교육 복지사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공단, 에너지공기업, 에너지 교육 전문기관의 힘을 모아 돌봄교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제품 만들기, 에너지보드게임, AR, VR을 통한 신재생 현장 체험 등 학생 중심 참여형 교육 콘텐츠를 적용하고, 일회성이 아닌 5일간의 연계형 교육 종합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에너지공기업 참여 및 개발 콘텐츠 】

		
<p>실무협의회 개최</p>	<p>공단-에너지공기업 MOU</p>	<p>Maker 도구</p>
		
<p>초등 교육 활동지</p>	<p>보드게임 도구</p>	<p>신재생에너지 AR 프로그램</p>

총 6회에 걸쳐 약 80여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완성도 검증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7월, 울산지역의 초등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13개교(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시범교육에 참관하던 날, 혹시라도 ‘에너지’라는 주제에 대해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했던 제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의 교육 몰입도는 기대 이상이었고,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게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우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서 더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라며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범교육을 통해 난이도 조정, 용어 수정 등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교육청과 전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고,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141개교(기관), 약 14,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新)바람에너지 교육 진행 사진】



초등 돌봄교실(울산 학성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울산 여럿이함께지역아동센터)

또한, 지난 10월에는 신(新)바람에너지 교육을 받은 울산지역 아동센터 학생 150여명을 공단으로 초청하여 에너지 마술공연, 소장님과 함께하는 에너지 토크 콘서트, 골든벨 대회, 신재생에너지 체험부스 등을 제공하여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날 교육 축제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그동안 교실에 앉아서 공부했던 에너지 지식을 공단에 직접와서 보고, 즐겁게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라며 교육 내내 들뜬 목소리로 재잘거렸습니다.

【신(新)바람에너지 교육 축제】

		
에너지 마술공연	에너지 토크콘서트	골든벨 대회
		
풍력발전 펭귄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VR 체험	신재생에너지 시설 견학

공단에 입사하고 여러 업무를 해왔지만, 이번 신바람에너지 교육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업무는 처음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들뜬 목소리, 아이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태양광, 풍력에너지는 저의 앞으로의 공단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아동들이 많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소외아동들에 대한 뜻깊은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